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회원사



(주)금복주



(주)더맥키스컴퍼니



(주)무학

##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거리캠페인’ 시행

양재덕 | 기획조사팀 차장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와 회원사인 주류·주정 제조업체는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으며 9월 26일 협회와 주류제조업체 임직원 약 60여명이 참여하여 강남역 유흥가에서 시민 및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등 건전음주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해 음주운전 금지와 청소년·임산부 음주 예방을 중점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서울 강남역 캠페인을 시작으로 9월 27일에는 (주)더맥키스컴퍼니가 대전의 중심가인 타임로에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시민들에게 건전음주를 홍보했으며, (주)무학은 주요상권인 부산(서면), 울산(달동), 창원(상남동)에서 임직원 110여명이 참여, 건전한 음주에 대한 내용이 삽입된 홍보물을 활용해 대



보해양조(주)



(주)한라산

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주)한라산은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들과 신제주 바이젠키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는 제주서부경찰서와 2012년 맺은 '건전음주문화 조성 및 주취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주)금복주 임직원 20여 명이 대구중심가인 동성로에서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보해양조(주)는 광주(구 시청)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건전음주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10월 11일 대선주조(주)의 부산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2013년 거리캠페인 일정을 마감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소주병의 보조상표(회사별 6만~600만 분)를 통해서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일각에선 아직까지 협회와 주류제조사들의 캠페인에 대해 주류 판매활동의 연장선으로 폄하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언젠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로운 음주 척결을 위한 건전음주문화 정착 캠페인을 매년 추진할 것이며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코올문제 예방에 일조해 나갈 계획이다.



대선주조(주)

